정읍 일광사,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점안



전북 정읍시 일광사에 십일면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나투었다.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는 12월 5일 십일면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김제 은적사 도일 스님, 익산 관음사 정수 스님,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을 비롯해 마하연승가회 스님들과 김생기 정읍시장, 정인택 前대불청 전북지구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새로 조성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에 경전과 다라니 등의 복장을 봉안하는 복장의식과 생명을 불어넣는 점안식은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주지 승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조성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진리로 이끄는 보살이다. 일광사가 불자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도와 정진을 멈추지 않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전에 조성된 관세음보살은 약 3m 높이의 통나무로 제작됐으며 십일면 부처님을 상두로 49수지와 천수천안으로 광배와 좌상을 조성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치 깨달아 모든 걸 내려놓다"

불교무용가 박준희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불교무용창작극 '인생별곡'이 12월 1일 조선대 해오름관서 펼쳐졌다. △1장 세상살이 △2장 악몽 속에서 △3장 가느다란 추억 △4장 깨달음의 길에서로 구성된 공연은 욕망과 증오 가득한 세상서 이치를 깨닫고 내려놓음을 통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담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교도소 수용자 "참회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영어의 삶을 살고 있는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지난 잘못을 참회하며 불자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전주교도소 불교반위원회(위원장 진성)는 12월 1일 전주교도소 강당서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전주 황방사 지호 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 불자들이 참석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을 수계법사로 200여 명의 수용자들이 동참한 수계법회서 수용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연비를 받았다.

승천 스님은 "수계자들은 미륵십선계를 받은 뒤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마음수양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 후에는 이달의 불자상 시상이 이어졌으며 자매결연 수용자들에게 영치금과 떡 과일 등 간식이 전해졌다.

한편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도 같은 시간 여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진송 스님은 여성 수용자들에게 미륵십선계를 설하고 '새롭게 태어나소서'란 주제로 법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구본사 중심 지역사찰 유대 강화"

윤중근 광주전남포교사단장 12월 3일 전진대회서 취임



단기를 전달받은 윤중근 신임 광주전남포교사단장.

조계종 광주전남포교사단이 새 단장 취임에 따라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지역사찰 간 유대강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윤중근)은 12월 3일 광주 수자타에서 '불기2560년 광주전남포교사전진대회 및 단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200여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례에 이어 연혁보고, 단기 인수인계, 이취임식, 시상, 격려사, 축사, 법문 등이 진행됐다. 전진대회는 한 해 동안 활동한 포교사들을 격려하는 행사와 더불어 김정연 전임단장의 일신상 사퇴로 인해 새로 선출된 윤중근 신임단장의 취임행사도 함께 열렸다.

제9대 윤중근 신임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단장님께서는 깊은 불교적 수행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단 포교사의 사표가 돼주셨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단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 △수행과 정진으로 포교에 진력하는 포교사 상을 세우도록 노력(정기연수, 정기법회 참여 독려, 포교활동팀의 전문화 교육실시) △환희와 생동감 넘치는 지역단 운영(포교사 개인의견 수렴, 단장과 팀원들 함께 활동) △지역 중심의 효율적 운영(포교사들의 조직개편과 교구본사 중심으로 지역사찰 유대강화) △나눔행사 활성화(사회약자 돕는 봉사활동 확대, 농어촌지역 봉사활동 실시) △화합하는 지역단 운영(포교사간 대화와 친선모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1년간 우수한 포교활동을 펼친 포교사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 자리서 총재상 조기남 포교사를 비롯해 포교사단장상 오양례, 지역단장상 이창욱 · 박숙아 · 손화자 · 송기진 · 김종미 · 양경행 · 김기정 포교사가 수상했다.

원로의원 암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려운 국가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마음가짐이다. 불자들은 불교적 수행을 하며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포교사들은 지역포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찰, 불자들과 함께 늘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군법당 수계법회 잇달아

선운사 · 송광사, 훈련 지친 장병들 위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 참석한 장병에게 연비하고 있다.

전북지역 사찰들이 잇달아 군법당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불자장병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2월 3일과 4일 각각 육군 논산훈련소와 임실 제6탄약창을 방문해 불자장병들을 위문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는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위문공연을 펼쳤다. 호국연무사 큰법당에 5,0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재무국장 수찬 스님, 학인스님들, 불교어머니회, 대전충청포교사단 포교사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수계법사로 등단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건강한 군생활과 안전하고 즐거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우 스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다녀와야 하는 것이 군대"라며 "억지로 하는 군생활보다는 전우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군생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훈련병들은 계를 지키고 신심 돈독한 불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맹세하는 연비의식을 통해 바른 군생활을 기원했다.

법회 후에는 댄스그룹 '소울 퀸'의 무대공연이 이어져 연이은 훈련에 지친 병사들을 격려했다. 또 선운사는 훈련병들을 위해 먹을거리와 볼펜, 수계첩, 합장주, 세안제, 만자 펜던트 등의 선물을 후원했다.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에서는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이 계사로 등단해 장병들에게 계를 설했다. 170여 장병이 동참한 수계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미륵십선계를 설하고 "추운 겨울 병사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한 군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영 스님은 장병들을 위해 간식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율 스님 광주서 첫 개인 콘서트

노래하는 스님 '정율 스님 힐링콘서트'가 12월 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지역 불자들의 성원 속에 열렸다.〈사진〉

'불교계의 프리마돈나'라 불리며 국내 · 외 여러 무대서 음성 포교를 하고 있는 정율 스님은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3배와 5분 명상을 시작으로 마하가섭중창단과 함께 2560년 전 인도 여행을 떠나는 노래 '띠사라나(삼보께 귀의하는 노래)'를 들려줬다.

콘서트에는 정율 스님 외에 광주지역 연합합창단과 108인 부다스합창단 등 대규모 인원이 무대에 올라 '꽃 피울 때까지' '희망의 나라로' 등을 합창하며 화합을 기원했다.

정율 스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우리는 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지혜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인연으로 행복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사찰식품연합회 영평사서 현판식

대한전통사찰식품제조연합회가 12월 2일 세종 영평사에서 현판식 및 대표이사 취임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수행' '노동' '전법' 3대 원력의 가치 아래 열린 현판식 겸 취임식에서는 초대회장에 산청 천평사 대전 스님, 연합회 감사에 영평사 환성 스님, 대표에 하철권 씨가 취임했다.

환성 스님은 "이익과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단순한 식품 제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전통사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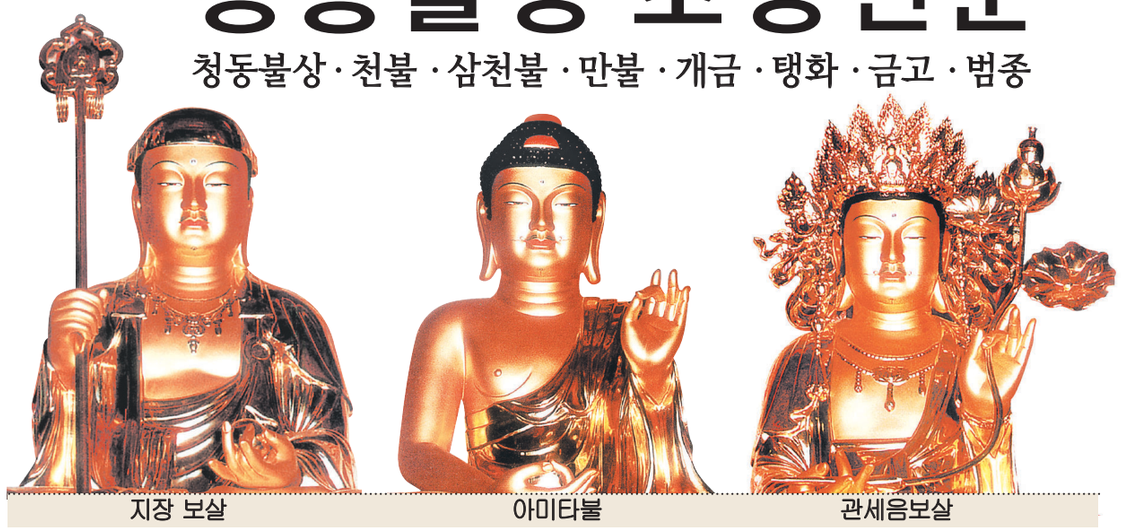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강화 선원사 성원 스님, 하동 상선암 보성 스님, 상전녹사 보전 스님이 동참했다.

박장선 충청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 라 밀 예 술 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